

소재·기능 차별화에 힘 싣는 K교복 엘리트학생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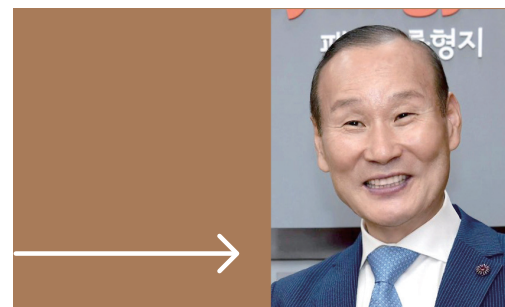
학생에게 딱 맞는 차별화된 품질과 디자인

엘리트학생복은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한 ESG 경영 트렌드에 맞춰 페트병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학생복 출시가 활발하다. 지난해 4월에는 교복 업계 최초로 투명 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로 만든 '리사이클 쿨스판 하복 바지'를 선보였다. 사방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신축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쿨스판의 기능은 살리고, 뛰어난 품질과 선명한 색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해 동복 시즌을 겨냥해 출시한 '친환경 소프트 원스판 바지'도 페트병 업사이클링을 통해 탄생했다. 최근에는 경량성과 보온성을 더욱 강화한 '친환경 에어 소프트 원스판 동복 바지'까지 선보였다.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 혼방 소재에 신축성이 우수한 라이크라 원사를 더한 제품으로, 주름이 덜 생기는 '링클프리 구김 방지 가공'을 통해 장시간 깔끔하게 착용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활동량을 고려해 실용적인 기능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업계 최초로 '인비스타 쿨맥스 원단'을 사용한 하복 셔츠, 블라우스 등을 선보여 무더운 여름철에도 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복 상의 거드랑이와 등 부분에는 이중 쿨패치로 처리한 더블메쉬를 적용해 통기성을 한층 높였다. 이 외에도 오염이 덜 타고 쉽게 제거되는 '나노 오염방지 셔츠', 오염되기 쉬운 카라만 떼어내 세탁할 수 있는 '카라 탈부착 셔츠', 자켓 소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매직 소매', 치마와 바지 밑단에 적용한 '파워 시접' 등이 있다.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엘리트학생복

엘리트학생복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학생복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016년 중국 패션 회사 빠오시니아오그룹의 계열사 보노(BONO)와 설립한 합자법인 '상해엘리트'는 2020년 흑자전환 이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 프리미엄 교복 수요 증가세에 주목해 거점 지역 위주로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고, 직영점과 별도로 대리상을 운영해 영업망을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최근 엘리트학생복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신사옥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로 본사 이전을 마쳤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인 학생복 브랜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형지엘리트의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학생복'은 1969년 제일모직에서 시작해 올해로 론칭 53주년을 맞았다. 패션·유통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토대로 성장기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학생복을 개발해왔으며, 뛰어난 품질과 트렌디한 디자인을 앞세워 명실상부한 업계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 페트병 리사이클 소재를 적용한 교복을 선보이는 등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형지엘리트 대표이사 최병오

엘리트학생복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학생복 부문에서 14년 연속으로 1위에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엘리트학생복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생복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0여 년간 고객 여러분들이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생복을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